



7년째 힐러리 로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의상을 담당하는 한인 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레스트 씨

7년째 힐러리 의상 맡는 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레스트

## “꿈은 저 하늘의 별 꼭 손 안에 넣으세요”

크이자 브랜드의 이름이다.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맞춤정장은 한 벌에 4000~6000달러(약 420만~630만 원)에 달한다. 고급스럽고도 편안하며 매력적인 맞춤복으로 알려져 미국 최상류층 여성 최고경영자(CEO)들과 억만장자의 부인들이 단골로 찾고 있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성공하게 됐을까?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뒤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재나 씨는 꿈이 많은 소녀로 자라났다.

“우연히 외국잡지에 나온 그림을 본 뒤로 막연하게 ‘예술가의 꿈을 꾸게 됐어요. 미래에 내가 가질 세상을 상상하며 스케치하기를 즐겨했어요. 꿈이 너무 많아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였지요.”(수재나 씨)

1969년 디자이너를 꿈꾸며 무작정 미국으로 간 그는 정말 힘든 생활을 했다. 집도 얻지 못해 차에서 쪽잠을 자며 뉴욕에서 패션스쿨을 마쳤고, 1976년 베벌리힐스에 지금의 시작점인 작은 부티크를 열 수 있었다.

“정말 힘든 순간에도 제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저는 제가 결국 성공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수재나 씨)

### 힐러리와는 ‘이웃집 친구’ 같은 사이

그가 힐러리 전 장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가 한창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후보로 떠올랐던 상원의원 시절이었다.

“론 버클(미국 유통업계의 재벌)의 집에서 열린 기금 마련 행사에 초대돼 참석한 자리였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더군요. ‘개인적으로 만나 의상을 부탁하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어요.”(수재나 씨)



수재나 씨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힐러리 전 장관의 모습. 왼쪽은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힐러리 전 장관. 오른쪽은 2009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수재나 베벌리 힐스 제공

그때 맺어진 인연을 시작으로 수재나 씨는 힐러리 전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거의 모든 옷을 디자인해왔다. 힐러리 전 장관의 공식 일정을 확인한 후 그가 방문할 곳의 기후와 문화, 행사 분위기나 참석자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 옷을 디자인한다. 지난 2009년 힐러리 전 장관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입었던 붉은색 정장도 그의 작품이다.

가장 완벽한 옷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체형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힐러리 전 장관과 종종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고, 지금은 ‘이웃집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가 됐다.

“항상 수백 명에 둘러싸여 만날 수 있는 분을 저는 둘이서만 만날 수 있으니 행운이지요. (힐러리 전 장관은)강인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무척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수재나 씨)

수재나 씨는 힐러리 전 장관이 자신에게 들려준 어린시절 이야기를 한국의 어린이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들려주었다. 힐러리 전 장관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힐러리, 저 하늘의 별을 보거라. 너 저 별을 손 안에 넣을 수 있단다. 그 별이 네 꿈이라면, 별이 네 것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열지 말거라.”

수재나 씨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라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면 그 꿈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베벌리힐스=경민아 기자 mina@donga.com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로범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그는 완벽하게 몸에 맞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다양한 색깔의 바지 정장을 입는다. 언제나 짙은 색 정장을 입는 미국 여성정치인들의 패션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는 각종 시사 잡지뿐 아니라 패션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다.

‘힐러리 룩’이라 불리는 이런 멋진 스타일은 한국인 여성 디자이너의 손에서 탄생했다. 수재나 정 포레스트 씨는 2007년부터 힐러리 전 장관의 의상을 담당해온 디자이너.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 최고급 맞춤정장 부티크(의상실)를 운영하고 있다.

힐러리 전 장관이 ‘글로벌 리더’를 넘어 ‘패션 리더’라는 이름까지 들도록 만든 디자이너 수재나 씨를 최근 베벌리힐스에 있는 그의 부티크에서 만나보았다.

### 꿈 많아 잠 못 이루던 소녀

‘수재나 베벌리 힐스’ 수재나 씨가 운영하는 최고급 부티

## 알림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2’ 보러가자!



입체(3D) 애니메이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2’(전체 관람 가) 시사회에 참여할 어린이동아 독자를 모집합니다. 전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에서 주인공 플린트는 물을 음식으로 바꾸는 슈퍼 음식복제기를 발명합니다. 결국 하늘에 올라간 음식복제기는 마을에 ‘햄버거비’를 내리지요. 이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2’에서는 플린트의 발명품이 음식과 동물들이 뒤섞인 돌연변이 ‘푸드 몬스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어린이동아 독자들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이벤트’ 게시판에 있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2’ 예고편과 영화 소개를 본 뒤 10일(일)까지 어린이동아 카페 이벤트 게시판을 클릭하면 나오는 신청서 양식에 맞춰 이름 △부모님 연락처 △신청매수 등을 함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린이동아

독자만 신청해주세요!  
모집인원 25명 내외(인당 관람권 2~4매)  
모집기간 11월 10일(일)까지  
당첨자 발표 11월 11일(월) 개별연락  
시사회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